불자 세상보기

공정한 경쟁을 가르치자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

국토도 좁고,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놀라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여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것에 대하여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원동력을 한글의 우수성에 따른 국민이 지식정보의 습득이 쉽게 이루어진 것과 컴퓨터 교육과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시간(속도)을 단축할 수 있는 선진화의 기반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고려시대부터 과거제도를 도입하고 훌륭한 교육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하게 발탁했다. 그 인재들이 국가 발전의 동량이 되였고, 학문과 교사를 존중하고 책(세계기록문화유산 보유 3위)을 사랑하는 민족이 된 것이다.

과거시험은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관리하는 기관과 제도가 있어 엄정하게 실시하였다. 그 전통은 현재도 계승되고 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자제들이 서울대학교에 권력과 돈의 힘으로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한 제도와 양심과 지성을 겸비한 교수들이 있다. 근래에 서울대학교 총장의 딸이 수시 면접점수에서 0.1점이 부족해서 탈락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필자는 이것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나라로 도약 발전시키는 원초적인 힘이라고 믿는다. 나라의 공무원이나 교사,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국민의 표상이다. 사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 S여고에서 명문대 수시 전형을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성적 우수학생 10위권의 학생을 졸업할 때가지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적을 몰아주는 생활기록부를 수정 조작한 사건은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이 학교는 2015년 6월 진학일보에 '면접관이 만나보고 싶은 학생의 보고, 광주 S여고'라고 대서특필하였다. 교장은 "우리 학교의 저력은 선생님들의 남다른 열정과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인터뷰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학교가 인성과 영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미션스쿨이란 것이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중요시하는 인성교육을 너무도 잘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최고의 입시 명문 고등학교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를 조작하고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지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문학교만 진학시키는 학교교육을 하고 있다. 모든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해 보고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한다. 이것은 아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최선을 다여 노력하여 당당하게 경쟁해서 패배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승자와 패자가 함께 손을 잡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학교에서부터 반칙과 변칙을 배우고 그것을 정당화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인성교육의 7대 덕목 가운데 첫 번째 덕목이 정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영역에서 대표적인 도덕적 덕목이 정직이다. 정직이 바탕이 되어 이웃에 대한 신용, 약속, 의리, 준법, 책임 등의 윤리가 생겨난다.

〈유마경 불국품〉에 "곧은 마음이 도량이다(直心是道場)"라는 말이 있다. 곧은(바른) 마음이 불국토를 건설하는데 바탕이 된다는 뜻이다. 서산대사의 '청허당집'에 "밝은 마음이 문수보살이고, 곧은 마음이 아미타부처님이다(明心是文殊 直心是彌陀)"라고 하였다.

이번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전반에 걸쳐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자.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우리 불교는 친구와 함께 가는 공부, 천천히 행복을 생각하는 교육, 참된 마음을 회복하는 인성교육 등을 실천해 보자.

발언대

경주 강진의 화두

한국이 지진안전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경주 지진으로 인해 드러났다. 지진피해는 복구되고 있지만 남은 과제는 많다. 이에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불교계가 신경써야 할 것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지진대비는 작은 것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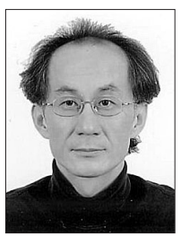
도진영
경주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가장 시급한 부분은 지진이 잦게 오더라도 이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경 정부에 의해 야외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R&D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미흡했다. 이는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설마 일어날까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교문화재 중 석탑과 석등 등은 야외에 있어 특별한 내진장치를 해야 지진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사찰 내부에 있는 다양한 불교문화재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일본의 사찰에서는 성보문화재를 낚시줄과 같은 투명한 줄로 묶어 놓는다.

이와 함께 조급한 마음에 무조건 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것만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진 대책을 신중히 세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절차를 면밀히 다져 집행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앞서 말했듯이 민간에서는 사소한 것부터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문화재 내진, 방향 정해야"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현재 문화재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먼저 석탑의 경우를 보면 통돌로 되어 있는 석탑은 그나마 나을 것이지만 다보탑과 같이 짜 맞춘 탑과 모전탑 등은 조금 더 큰 지진이 오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나 법주사 미륵대불과 같이 상단부에 많은 무게가 쏠린 입상 형태의 불상도 지진에 취약하다.

여기에 사찰을 포함한 한옥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이 태반이다. 사찰 구조를 보면 구조해석학적으로 접합부의 경구 상태가 강절이 아니기에 변형이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기와를 얹는 지붕의 무게가 무겁고, 대부분이 월대 위에 석축으로 된 기단을 쌓고, 이 위에 건물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반교란에 취약하다.

문제는 현재 정부와 불교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화재 내진장치를 할 지에 대한 논의나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건축방식이 틀리기에 우리 만의 방식을 연구개발해 나가야 한다.

"선조보다, 지진 인식 떨어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경주 지진에서도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인데, 탑 몇 개 무너지면 어때'라는 의견을 보았다. 이러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문화재는 옛 선조들의 사상과 문화를 반영한 그 나라,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선조들은 이젠 문화재가 되어버린 당시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였다. 이러한 선조들이 있음에도 현재 우리는 지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떨어진다.

특히 문화유산이 될 만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기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내진장치 설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일본에는 우리와 다르게 문화재에 내진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도 '지진'이라는 재난상황에 노출돼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만을 돌아본다면 먼저 스님들과 불자들의 인식부터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불교문화재는 불교의 문화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社說

문화재 내진설비에 관심을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12일 경주에서 5.8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400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건축법 상 내진설계를 의무 대상에 사찰을 포함한 한옥과 문화재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사찰은 대부분이 돌로 기단을 쌓아 그 위에 건축된 구조를 띄고 있어 지진에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불교계는 다양한 내진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대웅전 뒤편에 철골구조를 세우는가 하면 목재를 덧대 진동을 막기도 한다. 참배객들을 고려해 노출이 잦은 곳에는 토벽 속에 합판을 넣거나, 목재와 비슷해 보이는 철골구조를 쓰기도 한다.

이어 불상과 탱화 등 동산 문화재도 지진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끈 등을 활용해 고정시키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 다소 외관이 상하더라도 모든 것은 안전, 그리고 불교문화재 보호가 우선인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내진장치의 방향조차 설정돼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준다. 첫째가 안전이며, 둘째가 문화유산의 보존이다.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는 원칙을 세운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최근 지진으로 인해 성당을 비롯한 문화재가 파괴되며 원칙 수정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원형 상태에서 무너지면 새로 복원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재 중 원형 그대로 복원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더군다나 사찰과 불상 등은 구조가 약하면 그 안의 스님과 참배객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불교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진설비를 도입해 불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귀중한 성보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광동학원 설립 70주년에 부쳐

동국학원과 더불어 불교를 대표하는 종립학원인 광동학원이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았다. 70년이라는 긴 역사만큼 광동학원은 경기 북부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했다.

광동학원은 광복 이듬해인 1964년 운허 스님이 현재 봉선사에 '광동초급중학교(현 광동중학교)'를 세우면서 시작됐다.

1951년 전란으로 학교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건물은 불타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는 다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지에 따라 천막을 치고 수업을 이어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광동학원은 발전을 거듭했다.

현재 광동학원은 남양주 광동고·의정부 광동고·광동중 총 3개 학교로 구성돼 있다.

70년 동안 배출한 졸업생은 총 4만2883명으로 매년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5%에 이른다. 불교종립학교로서 지역 명문 사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던 것은 교직원·학생·동문이 하나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인성 교육은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광동학원은 오는 10월 4~10일 건학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동학원의 역사를 담은 사진 및 영상전시회 뿐만 아니라 설립자 운허 스님의 업적과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로 마련됐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광동학원을 통해 배출된 4만여 명의 인재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불교인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것이다. 광동학원이 다가올 100주년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과 불교 인재양성에 전력투구해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제1기 3개월 과정
비구니스님
(수계보살) 모집
① 염불·사물 : 매주 월요일 저녁 6시~8시
② 바라·작법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사)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 천수바라무 연수원
총무스님 010-5511-7000

영남 범음범패(통범소리)
제주도 교육원
- 실전위주 단기교육 특강 -
❶ 불교의식 각종 사물 단기교육
❷ 범음범패 실전위주 단기교육
❸ 각종(불공) 1인 진행법 단기교육 (전체교육 3개월)
현 시대에 맞는 실전위주의 톡톡튀는 불교의식 교육을 강의합니다.
제주도에서 홀로 포교당 운영 및 수행하시는 주지스님, 법사님 환영합니다.
■ 인터넷 유투브. 다음 (월오스님을 클릭 하세요!)
■ 영남 천수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극락무, 승무, 연화무, 지전무 등 배우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개인특강
■ 범음범패 문의 : 010-3189-0602 월오 합장
■ 불교무용 문의 : 010-3844-9565 하늘소리예술단장 (서련)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 서길 92
염불공덕 성취도량 문수암
전화 064-799-1559

대한민국 영산재 50호
경기범패 학인모집
▶기초반 : 염불송, 예절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불교의 유래, 기도의 참법, 간단한 액막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승려반 : 도량석, 조석예불, 종송, 사시예불, 사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기능반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법고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법주반 :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시다림, 파묘의식, 산소이장법, 바라태징법, 새벽종송, 각종점안의식, 각종 파불의식, 각종이운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강 주 : 민지효 스님
●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24 광법사
(구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동 303-8번지 광법사
문의전화 010-4466-3575